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시민 모금운동 뜨겁다

‘대위변제안 거부 4인 돕기’ 모금 1주일만에 2억원 돌파 아코디언 판 오월 부상자·예비부부·학생들 용돈 기부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투쟁을 응원합니다.” “식민을 극복한다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일본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 중 대위변제안 승소를 했지만 정부가 제안한 ‘제3차 대위변제안’ 배상금 수령을 거부한 양금덕(95) 할머니와, 이춘식(102) 할아버지를 포함한 원고 4명을 응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과 전범기업의 배상금이 아닌 우리나라 기업이 마련한 배상금 수령을 거부한 이들에게 국민들의 성금을 모아 주겠다는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의 모금액이 1주일 만에 2억원을 돌파한 것이다.

6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금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시작된 시민모금은 6일 낮 12시까지 2781건의 기부로 2억 354만 7099원이 모금됐다.

모금액이 많은 만큼 각별한 사연이 담긴 기부도 이어졌다.

오는 8일 결혼식을 올리는 예비 부부도 기부행렬에 동참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를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동아리에서 인연을 맺어 결혼을 앞둔 유정준(26)씨와 정은희(여·25)씨는 결혼에 앞서 미리 받은 축의금 100만원을 기부했다.

중앙대학교병원 내과 레지던트로 있는 유씨는 “일제 강제동원과 관련해 양금덕 할머니 관련 뉴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스를 보면서 ‘아... 이젠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계속했다”면서 “어렵게 꺼낸 제안에 예비 신부가 1초도 망설임 없이 동의해 줘 기쁜 마음으로

기부했다. 피해 어르신들께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18당시 부상을 입은 연극인 이지현(70)씨는 최근 야끼던 아코디언을 팔아 시민모금에 기부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자 5·18부상자동지회의 초대회장이기도 한 이씨는 5·18 이전에 또다른 아픔을 가지고 있어 눈길을 더 끌고 있다. 이씨의 부친은 1943년 일본 오사카의 한 조선소에 동원돼 고역을 겪다 해방 후 귀국했기 때문이다.

이씨 부친의 사촌형제 또한 강제동원 피해자로 합류해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피해자 어르신들을 기리기 위해 아코디언을 팔 수 밖에 없었다”며 “같은 피해자인 아버님과 당숙(아버지의 사촌형제)께서 하늘에서 박수를 보내주셨다”고 말했다.

초·중·고교생 세 명의 자녀를 둔 이정현씨는 아

이들에게 시민모금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기부사를 물었다더니 세 자녀가 모두 용돈을 선택 기부했다며 시민모금 홈페이지에 글을 남겼다.

이정현씨는 “초·중·고에 다니는 자녀들에게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위해 아직 버티며 싸우고 계신 4명의 강제동원 피해자 분들을 응원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함께 해줄 수 있냐고 물었다니, 3명 모두 용돈을 내어 선택 동참했다”고 게시글을 올렸다.

이 밖에 역사정의를 위해 시민모금에 나섰다며 부동산 관련 업체 사업가는 자신에게 의미있는 숫자만큼 기부(632만원)를 했고 모금에 참여한 시민들의 게시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당초 10억을 목표로 시작된 시민모금은 목표금액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모금이 중단되며 모금액은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 4명에게 균등하게 분배될 방침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시 시립요양병원 직영 운영을”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6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 시립요양병원 직영 운영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도 총파업 돌입

광주 시립 제1요양병원·정신병원 총파업이 시립 제2요양병원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7일부터 시립 제2요양병원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립 제2요양병원 노조는 60여명으로, 이 중 의

사를 제외한 대다수의 인원이 파업에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6일 쟁의권을 확보하고 7일 오전 9시 30분께 남구 덕남동에 있는 시립 제2요양병원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연다.

시립 제2요양병원은 전남대병원이 운영을 맡았지만 경영난을 이유로 최근 운영권을 내놓았다. 이에 다음달부터 지역 민간재단이 운영을 맡게 되는데, 노조는 시가 직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광주 시립 제1요양병원·정신병원 노조는 병원 운영 재단이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한데 반발해 지난달 15일부터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 6월 장맛비 418.4mm ‘역대 최다’

천동·번개 친 날 3.7일 ‘최다’
광주시에 6월 하순에 내린 장맛비 중 올해 역대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6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장마가 시작되는

6월 하순 광주지역에 올해 418.4mm의 비가 내려 기상관측망 전국으로 확장한 1973년 이래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다. 지난달 25일부터 30일 사이에는 제주도도 남부 지방에서 시작된 저기압이 빠르게 북상하면서 광주

·전남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하순 광주와 전남(목포, 여수, 완도, 장흥, 해남, 고흥)지역 평균 강수량은 역대 세번째로 많은 217.7mm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달 광주와 전남(목포, 여수)지역 소나기 및 호우 시 대기 불안정으로 천동·번개가 친 날도 평년의 1.7일을 크게 웃돈 3.7일로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법정 상한 넘긴 벌금형... 검찰총장 비상 상고로 정정

여수에서 경찰에게 욕설을 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감경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대법관 이동원)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비상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으로 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여수의 한 포장마차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광주지법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명령을 내렸고, A씨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모욕죄(형법 311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A씨는 이보다 100만원 많은 벌금을 낸 것이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는 판결로 형이 확정된 후 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대법원은 지난 6일 “원심이 법정형을 초과해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 것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병호 기자 jusbh@연합뉴스

2024학년도 대입 광주진로진학박람회

15~16일 김대중컨벤션센터

2024학년도 대입 등 진로·진학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박람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15~16일 이틀 동안 광주 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학년도 대입 대비 광주진로진학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에선 고교생의 대입 정보를 비롯해 중학생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진로·진학설명회도 열린다.

전국 139개 대학이 참가해 191개 부스가 운영되며 현장에서 입학사정관들과 입시전문가들이 맞춤형 대입진학상담도 진행한다.

진학전문교사 60명이 현장에서 고3 학생 360명을 대상으로 1대1 수시 대입 진학상담을 한다. 대학입학사정관과 교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학생부종합전형 모의면접을 비롯해 수도권 대학

공동 대입설명회, 광주·전남권 대학 공동 대입설명회도 열린다.

수도권 대학과 광주·전남권 대학 대입설명회와 음악·미술·체육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한 설명회도 마련됐다.

교육부 교육과정·평가 중앙지원단인 서울 오산고 박정준 교사가 ‘고교생을 위한 대입 제도 이해와 학습법’ 특강을 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표강사 안성환 교사가 진행하는 ‘수시 전형 대입 전략’ 특강 등도 펼쳐진다.

조진표 와이즈멘토 대표의 ‘사회와 입시제도의 변화에 따른 현행형 진로진학 설계’ 강의도 진행된다.

한편, 1대1 수시 대입 상담 및 대입설명회와 특강 참석 등은 박람회 누리집(www.jinhakexpo.or.kr)에서 8일 저녁 9시부터 사전 신청을 받는다. /윤영기 기자 penfoot@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개관 5주년 특별전 제4부
김병중 40년, 빛은 잠들지 않는다

길 위에서

남미부터 북아프리카까지

2023년 7월 4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전북 남원시 함파우길 65-14
T.063)620-5660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